

#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팀·한전 육상팀 전남에 새 등지

### 연고지 이전 절차 마무리...전남체육 경쟁력 강화 기대

### 펜싱팀-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정환·구본길 등 선수 5명으로 구성 육상팀-고흥 출신 김재용 감독·동아마라톤 우승 심종섭 등 11명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사브르팀과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의 연고를 전남으로 이전했다. 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두 팀의 연고지 이

전 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속으로 전국체육대회 등에 참가했던 두 팀은 앞으로 전남도 소속으로 활동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사브르팀은 김두홍 감독이 팀을 이끌고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정환과 구본길 등 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5차례 전국대회 출전에서 단체전 우승 2차례, 개인전 우승 3차례를 기록할 만큼 한국 실업 펜싱의 강호다. 전남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펜싱에서 1124점을 획득하며 펜싱 종목 종합 5위에 올랐는데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고 이전을 통해 300점 이상의 종합점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럭비팀에 이어 전남에 등지를 튼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은 고흥 출신 김재용 감독을 필두로 지난해 동아 마라톤 우승자인 심종섭 선수 등 11명의 선수단으로 짜여졌다.

전남은 지난 100회 체전에서 육상 종목 종합점 2696점을 획득하며 종합 6위를 기록했는데 한국전력공사 육상팀 연고 이전으로 약 300점의 득점 상승과 종목 총득점 3000점 획득을 예상된다.

특히 두 팀의 연고 이전은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의 공약이었던 초·중·고·대·실업 연계육성의 기반 마련과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체육회는 내다봤다.

김재무 회장은 "펜싱과 육상 종목의 연계육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생 선수들이 큰 꿈을 갖고 전남에서 평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레슬링의 고장' 함평 저력 보여줬다

### 함평군청·학다리고·함평중 경찰청장기·대통령기서 금 4개 등 총 메달 13개 획득

레슬링의 고장 함평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금빛 메치기를 보여줬다.

함평군청 레슬링팀은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2회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형주(55kg)와 김중민(이상 여자 자유형, 63kg), 이정근(남자 그레코로만, 77kg)이 각 체급에서 1위에 올랐다.

김경훈(67kg), 양시은(이상 남자 그레코로만, 72kg)은 결승에서 패해 은메달에 만족했다.

이 대회 각 부문 1위(30명)는 경찰관 특별 채용에서 실기점수 만점 및 면접 기회가 제공된다. 최종 4명이 선발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함평중학교, 함평학다리고, 함평군청 선수들도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제46회 대통령기 전국



학다리고 레슬링 선수단

시도대학 레슬링대회에서 선전했다. 함평중 윤준민(71kg)과 나종혁(이상 그레코로만, 92kg, 이상 3년)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함평학다리고 강경은(59kg, 1년)은 동메달, 최



함평군청 레슬링 선수단

희진(이상 여고부 자유형, 65kg, 2년)은 은메달을 따냈다. 이진섭(55kg, 3년)이 금메달, 강경민(이상 그레코로만, 60kg, 2년)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함평군청 양시은(77kg)이 은메달, 김중민(이상 남일부 그레코로만, 63kg)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KPGA '30대 파워'

### 34세 한승수 최종전 우승

### 35세 이원준 최고령 신인왕



한승수

이원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2020시즌 최종전이 끝난 8일 경기도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한 한승수(34·미국)와 이번 대회로 KPGA 코리아투어 역대 최고령 신인왕을 확정짓는 이원준(35·호주)이 나란히 '늦깎이 만세'를 외쳤다.

외국 국적의 교포 선수인 이들은 아마추어 시절 유망주로 주위 기대가 컸지만 프로 전향 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간 한승수는 2001년 US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최연소 본선 진출 기록(14세 8개월)을 세웠고, 2002년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선정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

2003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초청 선수로 나가는 등 장래가 유망했으나 2009년 프로 전향 이후에는 별다른 성적이 없었다.

PGA 2부 투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아시아투어, 캐나다 투어 등을 거쳐 2015년에는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웰리파인 스쿨을 1위로 통과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이원준도 마찬가지다. 이원준은 아마추어 시절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지만 역시 2006년 프로 전향 이후 우승이 없었다.

그의 프로 첫 우승은 지난해 KPGA 선수권에서 나왔고, 올해 10월 비즈플레이 전지신문오픈에서 통산 2승째를 따냈다.

손목, 허리 등의 부상으로 고생한 이원준은 종전 31세였던 KPGA 코리아투어 최고령 신인왕 기록을 무려 4년이나 늘려냈다.

그는 "젊은 선수가 받아야 하는 상인데..."라고 속스러워하며 "앞으로 대상, 상금왕 등 다른 상도 노려보겠다"고 의욕을 내보였다.

한승수는 "이원준 선수와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미국 아마추어 대회 때 이원준 선수가 호주 대표로 와서 알게 됐다"고 둘의 관계를 소개하기도 했다.

둘은 이번 시즌 KPGA 코리아투어 신인 자격으로 출전, 이원준이 신인상을 받았고 이 대회 전까지 신인상 포인트 4위였던 한승수가 이번 우승으로 2위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 첫 우승 한달만에 또...안나린 '스타 탄생'

### KLPGA 하나금융 챔피언십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4년차인 안나린(24)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안나린은 8일 인천 영종도 스키야드 골프&리조트 오션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80타로 정상에 올랐다.

장하나(28)를 3타차로 따돌린 안나린은 지난달 11일 오택캐리어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시즌에 2승 고지에 오른 선수는 박현경(20), 김효주(25)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안나린은 KLPGA투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 상금 3억 원을 손에 넣으며 상금랭킹 2위(5억 9502만원)로 뛰어올라 상금왕 경쟁에 뛰어들었다.

안나린은 시즌 마지막 대회인 SK텔레콤 ADT 캡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면 김효주를 제치고 상금왕에 오를 수 있다.

4년 동안 93차례 대회에서 우승 한번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안나린은 한 달 전 첫 우승에 이어 이번 우승으로 KLPGA투어 최고 자리를 넘보는 스타로 발돋움했다.

첫 우승 때는 10타차 리드에도 진땀을 흘렸던 안나린은 이번에는 KLPGA투어 현역 선두 최다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안나린.

승(13승)을 올린 장하나와 맞대결을 이기는 견고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안나린은 강한 바람과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때문에 출전 선수 모두가 고전한 이날 선두권에서는 혼자 언더파 스코어를 냈다.

/연합뉴스

# 5개 대회 출전만에 또...신지애 '시즌 2승'

### JLPGA 토토 저팬 클래식 우승

신지애(32)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토토 저팬 클래식(총상금 1억6000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애는 8일 일본 이바라키현 오미타마시 다이헤이 클럽 미노리코스(파72·655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이글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197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2위 유카 사소(필리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400만엔(약 2억6000만원)이다.

16번 홀(파3)까지 먼저 경기를 끝낸 사소와 공동 선두였던 신지애는 17번 홀(파5) 이글로 2타차 단독 1위가 됐고,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아 우승을 자축했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와 JLPGA투어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JLPGA투어 대회로만 진행됐다.

신지애는 10월 후지시 레이디스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0월 초 일본여자오픈부터 JLPGA투어 대회 활동을 시작한 신지애는 올해 5개 대회에 나가 두 차례 우승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JLPGA투어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6월에 2020시즌을 시작, 이번 대회가 올해 11번째 대회



JLPGA 투어 토토 저팬 클래식에서 우승한 신지애.

로 열렸다.

올해 JLPGA투어에서는 한국 선수 중 신지애 혼자 2승을 수확했다.

시즌 상금 4643만엔을 쌓은 신지애는 상금 순위 4~5위권으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